

오전9시, 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 레 송	.....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갈 이
※ 예배부름	..... 인 도 자
※ 예배기원	..... 인 도 자
※ 경배찬송	..... 19장(찬송하는 소리있어) ..... 다 갈 이
※ 교 독 문	..... 135(성령강림1)..... 다 갈 이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갈 이
찬 송	..... 187장(비둘기같이 온유한) ..... 다 갈 이
예배기도	..... 1부 박기환집사 2부 김혜경권사
응 답 송	..... 찬 양 대
이달의찬양	.....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 다 갈 이
협력기도 / 한마음기도 / 중보기도	..... 다 갈 이
* 에스더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 성령의 은혜로 세워지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 데살로니가전서 5:19-22 ..... 오복실권사
찬 양	.....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 “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 ..... 최세열목사
기 도	..... 설 교 자
◆응답하는 예배◆	
찬 송	..... 189장(진실하신 주 성령) ..... 다 갈 이
봉 헌	..... (에스더회) ..... 다 갈 이
봉헌기도	.....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 말 은 이
※ 찬 송	.....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 갈 이
※ 축 도	..... 담임목사
※ 축 복 송	..... 찬 양 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 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7:30분		시백기도회(월-금)	
인 도 / 최세열목사	찬 양 / 다 함 께	인 도 / 최세열목사	찬 양 / 다 함 께	새벽 5:00	인도 : 담임목사
기 도 / 공영순권사	본 문 / 사도행전 4:11,12	기 도 / 한마음기도	본 문 / 삼하8:13-18	시편강해	
말 씬 / 최세열목사	말 씬 / 최세열목사	말 씬 / 최세열목사	말 씬 / 최세열목사	<b>금요기도회</b>	
교회를 경험하는 삶	33과 “복음의 실현”	교회를 경험하는 삶	33과 “복음의 실현”	금요일 오후8시	합심기도, 중보기도, 개인기도
축 도 / 최세열목사	축 도 / 최세열목사	주기도문 / 다같이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함경숙 김혜경	다 음 주 기 도	1부	선우명환집사
		오복실 안복선 노대성		2부	강항구장로
	헌금위원	5월 박기환 정선례 김귀례 송영임	다 음 주 성경봉독	1부	말 은 이
		6월 김기희 허 웅 박현순 정재영		2부	천사라권사
식당봉사	금주 루디아B	다음주 사라희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말은이	
헌신찬양	금주	에스더회	다음주	전도사역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 데살로니가전서 5:19-22**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예수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에 이르렀음에도(고전12:3) 여전히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임재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경고하십니다.

**1.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령은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분께서 스스로 판단하시고 일하십니다. 무엇보다 성령에 대해 관심하지 않고 예민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임재와 일하심을 느낄 수 없고, 동행하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지닌 욕망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히13:5, 마6:24). 바울은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심히 고민하기도 했습니다(롬7:22-25).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십니다. 이는 곧 성령의 임재와 소멸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불을 끄게 하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지 않을 때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범죄하게 됩니다(사21:25).

**2. 성령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허무함에 빠지게 됩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아도 교회가 존재하고, 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이 성령과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꾀에 빠져 머리카락이 잘리고 성령이 자신을 떠나셨음을 모르고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수모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보다 앞서서 무엇을 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성령과 동행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님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허무함이고, 이로 인해 우리는 죄의 유혹과 악의 권세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를 얻었던 엘리야도 낙심하자 광야로 도망쳐서 죽기를 구하는 자리에 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호렙산으로 보내어 그곳에서 다시 금 하나님의 말씀과 영에 감동되어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회복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3. 성령의 회복을 위해 성령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로 성령을 소멸하게 되었는지, 지금 무엇으로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갈5:22,23). 만일 육체의 일에 빠져 있다면 성령을 소멸한 것입니다(갈5:19-21). 성전인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고전3:16). 성경에 나타난 성령에 대한 상징적 표현은 비둘기입니다. 세례 받으신 예수님의 머리위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다고 했습니다(막3:16,요1:32,33). 그런데 비둘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피죤(집비둘기)과 도브(산비둘기)가 그것인데 성령을 상징하는 것은 도브(KJV마3:16)입니다. 피죤과 도브는 전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도브가 지닌 순결과 민감성은 주님의 성품을 상징하고 동시에 성령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 어지러워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교회와 우리 신앙이 능력을 상실한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립시다. 성령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신앙주제로 나누는 구역예배(신앙주제5: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  
5/20 제4과 선교의 모범을 보인 안디옥교회(사도행전 13:1-3절)

**말씀 살피기**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심해집니다(행8:1).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하여 여러 도시에 흩어지게 되는데 그 중 일부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믿는 사람들이생기고 교회가 세워집니다(행11:19-23). 이 교회가 바로 안디옥교회입니다. 안디옥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함으로 세계 선교에 크게 이바지합니다.

**말씀 묵상**

안디옥교회는 선교 역사에 큰 자취를 남긴 교회입니다.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이 전해지던 시절에 안디옥교회는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여 다수의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행11:20). 안디옥교회는 유대의 벽을 넘어선 교회가 된 것입니다.또한, 안디옥교회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파송 받은 두 사람은 구브로 섬, 아시아(터키), 그리스 반도, 로마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기독교가 세계적 종교가 되는 초석을 쌓았습니다.

**첫째, 안디옥교회는 성령의 지시에 순종합니다.**

성령의 지시는 두 사람을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역사는 짧았습니다. 교회 자체를 위하여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려면 유능한 인재와 물질 자원이 교회 내에 많이 필요한 실정이었었습니다. 이런 때에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은 교회 입장에서 머뭇거리지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교회는 교회의 입장을 유보하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둘째, 안디옥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성령의 지시에 따라 선택된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나바는 발을 팔아 교회에 헌납한 헌신적인 사람이고(행4:36-37),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큰 무리로 예수를 믿게 한 사람입니다(행11:24). 바울은 가말리엘 문하생으로 학문과 지식이 높고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행22:3). 아마도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인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교회는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여 과감히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안디옥교회는 교회의 필요보다 하나님 선교를 우선시했습니다.

**셋째, 안디옥교회의 선교사 파송은 세상을 변화 시킵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 받은 바나바와 바울은 지중해 일대와 터키 지역, 그리스 반도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주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때로 구제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고, 우상숭배, 미신, 마술 등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선교를 통하여 사람과 사회가 변하고 점점 하나님 나라가 땅에 실현되었습니다. 선교는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며, 진리와 섬김을 통하여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나가는 일입니다. 성령이 그 일을 하라고 분부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몸으로 물질로 기도로 이 선교사역에 동참해야합니다.

1. 우리 교회가 하는 선교 활동을 알아봅시다.
2. 선교는 몸으로, 물질로, 기도 등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오늘은 성령강림주일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임재를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2. 오늘은 평신도참여예배로서 에스더회가 함께 했습니다. 에스더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 주일 찬양예배는 구역별 친교와 예배로 모입니다. 각 구역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성령강림절 작정밤기도회가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모입니다.
5. 노회소식 : 주룩은혜교회의 장로임직식과 담임목사취임식이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5월의 행사**

- 5.6. 어린이주일
- 5.8. 어버이주일
- 5.12 해든술 선교활동
- 5.20 평신도참여예배 - 에스더회
- 5.28-6.1 성령강림절 작정밤기도회(매일오후8시 소예배실)

**향기로운 예물과 봉사**

- 십 일 조 : 최세열 조성순 강승례 서영자 김귀례 김병진 최임춘 허 웅 김순임 김홍영 황은상 이현옥 지국남 김선주 원혜경 오복실 곽현석 박세일 선우명환 장영분
- 감사헌금 : 김동현 김지환 나인애 나인원 김혜경 김순임 노대성 정재영 박영락 양희임 최세열 조성순 이석영 서영자 무명2 (일천번제) 김동현 김지환 이병각 인민숙 한진현 한재현
- 건축헌금 : 박홍만 정정희 박요한 엄정현 함경숙 정선례 이유자 사라희
- 비전씨앗 : 배영인 김하윤 황은상 이윤기 나인원 나인애 임동용

**예배시간안내**

구분	요일	시간	장소	구분	요일	시간	장소
주일예배	주일	오전9시,11시	본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시	소예배실
찬양예배	주일	오후 2시	본당	어린이예배	주일	오전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년부	주일	오후 1:00	도서실

**피죠티on과 도브dove,**

우리는 그냥 비둘기라고 말하지만 크게 보면 두 종류의 비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원이나 거리에서 만나는 비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무서워하거나 도망하지도 않는 종류입니다. 이 같은 비둘기들을 가르쳐 '피죠티on'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의미하는 비둘기는 피죠티on과는 달리 '터틀도브'라고 하는데 절대로 사람들이 많은 도시에는 날아오지 않습니다. kjv은 마 3:16절에서 비둘기를 뜻하는 헬라어 '페리스테란'이라는 말을 'dov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8절에도 제사에 쓰이는 비둘기를 산비둘기(도브)와 집비둘기(피죠티on), 이 둘로 나누는데, 이것은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다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성령이 '피죠티on'같이 내려오셨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죠티on이 사람에게 내려와서 머물렀다면 별로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별로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현실에서 피죠티on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피죠티on을 쫓아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놈들은 웬만한 위협에도 도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둘기와는 많이 달라서 매우 조용하고 순하며 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피죠티on과 도브를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피죠티on은 소음에 별로 개의치 않는 데 반해, 도브는 시끄러운 소리에 아주 민감합니다.

피죠티on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도브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피죠티on은 자기 영역을 구분하여 구역을 주장하는데, 도브는 텃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피죠티on은 아주 강한 귀소본능이 있어 훈련할 수 있지만, 도브는 길들지 않습니다.

피죠티on은 한 마리 이상과 짝을 짓지만, 도브는 평생 한 마리하고만 짝이 됩니다.

우리는 이 둘의 비교를 통해 도브가 왜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피죠티on이 절대로 성령님을 상징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원전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한다”

2018-20호

2018.5.20.

**성령강림주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더라면 악한 영이 세상을 온통 집어삼키고 말았을 터인데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나라를 위해 힘을 내게 하시니 그 은혜가 크고 위대함을 고백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삶이 성령님이 충만하여 무기력한 삶에서 탈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나님나라 가치를 위해 지지치 않고 달려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성령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시고 일상의 삶에서도 활력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셨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신앙의지에 사로잡히는 분이 아니라 위로부터 은혜로 임하시는 분임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입술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시간과 공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되어 거룩한 맛을 공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모두 맺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방언통역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통해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담임목사 : 최세열(imcsr@hanmail.net)**

**시무장로 : 박홍만 강항구**

**교육담당:정언태목사 지위:손효모 반주:김은영 최지현**